
失 郷 民



체육부 학교체육과
과 상 김 성 배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 그러나 고향을 잃어 버린 사람도 있다. 이른바 실향민.

일엽편주에 목숨을 걸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패망 월남의 베트남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주 위에는 실향민이 많다.

해방이후 6·25사변을 계기로 이북동포들은 고향을 버리고 자유대한에 남하하여 살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북에 두고온 부모형제와 고향산천을 그리는 망향의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고 날이갈수록 더욱 커가는 망향의정을 애써 달래며 조국통일의 그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월남한 실향민들은 고향이 가까워 보이는 임진각 망향의 동산에 모여 북에 두고온 고향쪽을 향하여 지금은 생사조차 알 길이 없는 부모형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고향을 두고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설움을 보는 것이다.

K씨는 6·25 때 단신으로 월남한 월남피난민중의 한사람이다. 四顧無親인 그는 갖은 고생끝에 성년이되어 가정을 이룬후 오직 가족과 일민

을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몇개월전 50이 갖넘은 중년의 나이에 아깝게도 지병으로 병사하였다. 평소 고향에 관하여는 말이없던 그도 죽어서나마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그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고향이 그리다거나, 부모형제의 안부에 관해서 일체 입밖에 낸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운명의 순간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다.

말이 없었다고 해서 어찌 북에 두고온 부모형제를, 고향산천을 한시라도 잊을 수 있었으리오.

금의환향은 이루지 못했으나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저승에서나마 이루겠다는 그의 유언에 따라 그 가족들은 그의 유골을 북녘으로 흐르는 한탄강에 띄워 보냈다고 한다. 부디 그리던 고향에 가서서 편히 잠드시라는 기원과 함께.

그들은 K씨가 그토록 사무친 망향의 정을 간직하고 있었는데도 그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딘 신경에 죄의식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에 고향을 두고온 월남 실향민이 아니더라도 타향살이 하는 사람에게서는 항상 그리운 것이 고향이다.

해마다 명절이 가까워 오면 서울역이나 고속 버스터미널에 밀려드는 인파, 그것은 모두 그리운 고향을 찾아 가는 귀성행렬이 아니던가.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나도 고향을 그리는 것은 예외가 아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이 아니 면서도,

내고향이 있는 조금마한 남쪽 항구도시, 거기에는 내가 어려서 뛰놀던 언덕이 있고 여름철이면 해엄치며 즐기던 바다가 있다. 방파제 따를 수없이 거닐던 추억이 있다. 나의 어린시절이 거기있다.

지금도 고향생각을 하면 인정넘치고 순진무후한 어린시절이 곧잘 연상되곤 한다. 메마른 지금의 도시생활에 찌들린 때문일까.

산업화로 인한 도시인구의 과밀현상은 우리를 고갯으로 하고 고독하게 한다. 집을 나서면 넘치는 인파에 보행이 자유롭지 않다. 신체적 결합에서가 아니라 밀리는 인파에 떠밀리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단거리 운동선수가 되어야 한다.

차량의 물결은 출퇴근시간을 몇갑절 더디게 한다. 러시아워의 제3한강교 남쪽어귀 반포대교의 북쪽끝에 밀리는 차량행렬은 흡사 질펀한 바다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혼잡은 서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방에 가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예전의 분위기가 아니다.

다방은 차를 들며 담소하기 위해 가는 것이련만 지금은 다방에 들어서자마자 차를 주문해

야 하고 또 차를 들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만큼 지금의 다방은 목마른 사람에게 차만을 팔고 사는 장소처럼 되어 버렸다.

음식점에서는 자리잡기가 어렵고 또 어렵게 자리를 잡으면 속히 자리비워 주기를 기다리고 서있는 수많은 시선들의 무언의 재촉에 못이겨 쫓기듯 음식을 드는등마는등 일어서야 한다. 조금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겨를이 없는 생활의 연속이다.

봄비는 인파는 병원도 예외일 수 없다. 진찰시간의 몇갑절에 해당하는 지루한 대기시간에 건강한 사람도 득병할 형편이다.

산업화가 가져온 도시인구의 과밀현상 그 과밀 인구가 토해낸 배설물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어느것 하나 마음놓고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다.

등산로의 우물은 생수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휴일의 관광지에 몰려드는 인파는 끊임 사이가 없다. 극장, 공원, 백화점 어디를 가나 물리는 인파를 벗어 날 수 없다. 이토록 많은 사람 그사람들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 존재하면서도 흡사 무인 고도에 표류해온 듯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주거환경도 과학문명의 이점만을 수반한 것은 아니다. 하늘을 향해 높다랗게 치솟은 고층아파트 촌의 살벌한 풍경은 콘크리트문화의 폐단을 엿보게 하고 이웃과 단절된 내부구조는 오늘의 도시인들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이웃을 단절하는대는 아파트촌과 크게 다를바 없다. 드높은 담장위에 둘러 쳐진 철책, 그위에 다시 철조망을 얹어매고 육중한 철 대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있어 웬만한 강심장의 사람이 아니고는 문을 두드릴

용기마저 갖지 못하게 한다.

방문객을 대문앞에 세운채 도어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문형식의 살롱경한 대화, 신문(?)이 끝나고 방문이 허용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준비없이 대문안에 들어설 수도 없으리 만큼 사나운 개가 도사리고 짖어댄다. 또 용무가 끝나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대문밖으로 채 발길을 옮기기도 전에 광하고 뒤에서 쫓전을 때리는 철문닫는 굉음이 방문객을 흠칫 놀라게 한다. 모두가 하나같이 불신과 모멸로 인정을 단절시키는 것들 뿐이다. 헤일 수 없이 많은 인파, 그 인파속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경원하고 인정을 의식적으로 단절해 가며 살고 있다. 그것이 도시가 갖는 익명성의 잇점으로 배꿀 수 있는 것도 아니련만. 인파에 떠밀리 면서도 소외감과 고독감을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도시인이다.

그래서 도시인은 항상 고향이 그리운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 원초의 고향인 농촌을 떠나 그 곳과 대조적인 도시의 현실생활이 귀소본능을 가진 우리에게 그것을 갈구하게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때나 훌쩍도시를 떠나 고향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을 사는 도시인이다.

생활의 굴레가 고향을 그리는 도시인을 얽매어 붙들고 있다.

그리고 보면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 가지 못하는 월남동포만이 실향민이 아니다. 자유의 땅, 몇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고향을 두고도 생활의 굴레를 벗지못해 가지 못하는 수많은 도시인, 그러면서도 도시공해와 고독과 살벌한 생활환경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름다운 자연, 인정미넘치는 고향을 그리고만 있는 도시인은 산업화로인한 물질문명에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아닌가.

우리가 낮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인정을 느낄수 있고 포근히 감쌀수 있는 마음의 고향을 찾을 날은 언제 일까…….

북녘땅에 고향을 두고온 실향민이나 마음의 고향을 잃은 도시민이나 모두가 하루속히 고향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할 뿐이다.



♣ 식량절약을 위한 캠페인 ♣

주부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보다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최근 영양학자들의 연구결과 보고에 의하면 쌀밥편식은 우리몸에 아주 해롭다고 하며 가장 이상적인 식생활은 보리쌀등 잡곡을 많이 먹는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